

# 영생의 진리 알면 전도 사명과 의무 수반된다

## 감로이슬성신: 불로초

구세주의 증표는 감로이슬성신입니다. 감로가 바로 삼신산의 불로초라고 격암유록에 써 있습니다. 감로이슬성신을 받으면 죽으려야 죽을 수가 없고 완전히 사람의 탈을 벗어서 하나님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원무궁토록 살게 되어 있지 백 년이나 천 년 살다가 죽는 법이 없어요. 그것이 바로 삼신산의 불로초가 되는 감로이슬성신인 것입니다.

옛날의 진시황제가 삼신산의 불로초가 조선 땅에 있으니까 조선 땅에 가서 삼신산을 찾아서 불로초를 캐오라고 동남동녀 오백 쌍을 보냈던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옛날 조선 땅에 와서 삼신산을 암만 찾아봐도 찾지를 못하고 중국에 그냥 갈 수가 없었고요 그냥 가면 진시황제가 불로초를 캐오지 못했다고 죽이는고로 중국 땅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옛날 조선 땅에 눌러서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일본 땅으로 건너가서 일본에서 살게 되었으므로 이제그대로 후손들이 일본에 많이 있는 것입니다. 일본 모리 총리가 중국에서 삼신산의 불로초를 캐러왔던 조상들의 후손이라고 자기 입으로 말을 했던 것입니다.

옛날부터 조선나라하고도 남조선이 바로 이상향이라고 일컬어왔던 것입니다. 이상향이라는 건 하늘나라가 남조선에서 이루어진다는 말입니다. 격암유록에는 소사 땅에서 예뎡동산이 이루어질 것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 하는 말이 있습니다. 옛날에 예뎡동산이 무너졌지만 그 하늘나라가 소사에서 이루어지고 건설된다는 말인 것입니다. 그리고요 소사에서 이루어지지 않으면 전부 다 흉내를 내는 마귀 역사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리고요 소사 땅에서 이루어져야 되고, 91년도에 하늘나라의 건물이 서야 진짜 하나님의 역사가 되는 거지, 91년도

에 이루어지지 않으면 안 되게끔 되어 있어요. 격암유록 갑을가에 정도령이 61세 때에 하늘나라의 집을 짓게 되어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 천국은 하나님이 늘 계시는 곳

이 집이 세상 집인 것처럼 생각될지는 몰라도 이 집은 삼위일체 하나님이 늘 함께하고 있어요. 삼위일체 하나님이 이 사람 속에 있습니다. 이 사람이 이 제단에 매일 서고 있죠? 이 제단에 삼위일체 하나님이 늘 거하고 있는 곳이에요. 그러고로 삼위일체 하나님이 항상 거하고 있는고로 여기가 바로 천국이에요. 아시겠어요? 사람 눈에 볼 때에는 보통 건물과 비슷하니까 천국인줄 모르고 그러지만 사실 천국이에요.

이렇게 하나님의 예정된 역사가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역사를 빨리 이룰 수 있도록 협조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매일 같이 전도를 하여 사망의 바다에 빠져 있는 사람들을 건져 내는 것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전도를 해서 한 명씩 한 명씩 데려 오는 것이 여러분들의 사명이자 의무 책임인 것입니다. 사명과 책임을 다하지 못하면 문책을 해서 해임도 시키고 그립니다. 하늘나라 법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명을 다하지 못하면 구원이 없어요. 그게 바로 죄예요. 무슨 죄인지 아세요? 자기가 해야 할 책임, 자기가 해야 할 사명, 자기가 해야 할 의무를 다하지 못하면 그것이 의무를 다하지 못한 죄에 해당되는 거예요. 세상 법에도 의무와 사명을 다하지 못한 사람을 해임시켜요. 너 그만 뒤라. 집에 가서 어린애나 봐줘라. 하늘나라 법도 마찬가지예요.

그러고로 우리가 이제 이 영생의 복음을 알게 된 책임이 수반되는 것이 당연한 겁니다. 영생을 향해서 가는 사람들이 자기의 책임과 의무를 다하지 못하고, 자기의 사명을 이행하지 못한다면 반드시 문책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사명을 다해야 돼요. 자기의 사명을 다해야 하나님한테 칭찬받고, 인정받는 것입니다. 그래야 구원을 얻는 거지 인정을 안 받아가지고는 구원이 없어요.



구세주 조희성님

지 못하고, 자기의 사명을 이행하지 못한다면 반드시 문책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사명을 다해야 돼요. 자기의 사명을 다해야 하나님한테 칭찬받고, 인정받는 것입니다. 그래야 구원을 얻는 거지 인정을 안 받아가지고는 구원이 없어요.

## 감사하는 생활을 하라

승리제단이 걸로 보기에 하나의 세상 건물과 비슷하게 생겼지만 이게 바로 구원선이에요. 여길 나오면 반드시 구원을 얻게 되어 있어요. 여기에 나오면 감로를 받아먹게 되어 있어요. 감로가 삼신산의 불로초이고로 불로초를 먹으면 죽지 않게 되어 있어요. 그게 옛날 수천 년 전부터 내려

온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제그대로 여기 들어와서 앉아있는 사람이 복중에 복이라는 것이 왜 복이나면? 영생을 얻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 사람이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항상 감사하는 생활을 하라. 그랬습니다. 내가 지금 살고 있는 것도 감사, 내가 호호하고 있는 것도 감사, 또한 승리제단에 나와 앉아서 예배를 보는 것도 감사, 모든 게 감사예요. 감사가 나오는 사람 얼굴에 웃음꽃이 피어납니다. 감사를 하는 사람은 항상 웃게 되어 있어요. 웃으면 피가 맑아지고, 감사하는 마음은 웃음이 끊이지 않아요. 항상 감사하는 사람은 항상 웃게 되어 있어요. 항상 웃게 되어 있으니까 피가 맑아져요.

피가 맑아져서 하나님의 피로 변해요. 하나님의 피로 변해야 죽지 않는 몸이 되는 거지 하나님의 피로 안 변하면 꼭 죽게 되어 있어요.

## 사람을 동물로 보는 것은 잘못

이 사람이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기를 이 세상에는 학문이 없었다. 이 세상의 학문이 전부 잘못되어 있다. 했습니다. 이 세상 만물이 다 신이다.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옛날 노인네들 큰 나무나 바위에 대고 빌고 그런 적이 있었습디다. 왜 그렇게 빌고 그런 줄 아세요? 그렇게 빌면 소원이 이루어져요. 왜냐하면 그 속에 하나님의 신이 다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신이 그 기도하는 말씀을 듣고 그것을 다 이루어지게 했던 거예요. 그걸 가지고 기독교에서는 우상이라고 그러죠? 기독교는 모든 만물이 신인 걸 모르기 때문에 우상이니 뭐니 거짓말로 말을 했던 거예요.

이 세상에 모든 만물이 신이라는 증거와 입증을 찾아본다면 다 쓰러져 가는 집에 사람이 살면 그 집은 안 쓰러져요. 사람이 안 살면 그 집이 쓰러져요. 사람이 신이고로 사람의 몸에서 신이 발산되어 나오는고로 암만 다 쓰러져 가는 집이라고 안 쓰러져요. 그러고로 사람이 신이라는 거예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직계자손이에요. 사람이 하나님의 직계 자손이고로 사람이 자체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을 동물로 여기고 있는 것이 이 세상 학문이죠? 이 세상 학문이 그래서 학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학문이 없다고 그러는 거예요.

## 하나님의 역사는 어떻게 이루어지게 되어 있어

구세주가 왜 왔느냐? 천지개벽을 하러 왔어요. 먼저 사람 속의 마음을 완전히 하나님의 마음으로 바꿔 놓는 거예요. 사람 속에 있는 마음을 하나

님의 마음으로 바꿔놓으면 사람의 몸이 하나님의 신으로 화해요. 사람 몸에서 하나님의 신이 발산되니까 공기가 하나님의 신으로 바뀌어져요. 공기 자체가 마귀 신으로 되어 있어요. 마귀 신으로 되어 있는 것을 전부 하나님의 신으로 바꾸니까 공기가 하나님의 신으로 바뀌어지면 사람이 호흡을 해서 들이마시면 하나님의 신을 마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쉽게 되게 되어 있어요. 처음에만 하나님 되기가 좀 어렵지 하나님 된 사람들이 많아지면 이 세상 공기, 이 세상 만물이 하나님의 신으로 변하기 때문에 쉽게 이루어져요. 하나님의 역사가 끝까지 이렇게 어떻게 이루어지는 게 아니예요. 시작만 어렵지 어느 정도 이루어지면 쉽게 이루어져요. 순식간에 이루어져버려요.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이루어지니까 처음에는 제단 나오다가 떨어지는 사람 많이 있게 되어 있어요. 그게 격암유록에 써 있어요. 처음에 나온 사람 다 마귀한테 사로잡혀서 떨어지게 된다고 격암유록에 써 있어요. 그러나 중간에 나온 사람들은 떨어지지 아니하고 구원을 얻는다고 그랬어요. 그러나 마지막에 나오는 사람들은 다 지옥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들 기왕이면 일찍이 나와서 인내로 끝까지 매달려서 율법을 지켜야 구원이니 함부로 하나님에게 누가 되는 말을 지껄인다거나, 하나님의 역사에 방해되는 말을 했다가는 지워지지 않는 죄를 짓게 되는 거예요. 그게 성경에 써 있어요. 성경을 거스르는 죄를 짓는 자는 사함을 받지 못한다고 그랬어요. 용서되지 않는 죄예요. 말 한마디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하나님의 역사에 누가 되는, 방해가 되는 말 한마디 했다는 것은 용서를 받을래야 받을 수 없는, 영원무궁토록 용서 못 받는 죄에 걸리는 거예요.\*

2001년 2월 8일 말씀 중에서

## [연재]不老不死 어떻게 가능한가

### 피의 순환

사람의 건강이란 신체의 항상성이 잘 유지되어야만 한다는 것을 앞에서 살펴보았다. 그렇다면 왜 신체의 자동 가능한 항상성이 깨지면서 질병에 걸리게 되는가?

## 동양의학에서는 어떻게 보는가

동양의학에서는 질병의 원인을 유기체와 환경과의 복합적인 상호의존성의 고려 하에서 파악한다. 모든 질병의 원인을 크게 외인(外因) · 내인(內因) · 불내외인(不內外因)의 세 가지로 분류한다. 외인은 풍한서습화(風寒濕燥火) 등 외기(外氣)가 밖으로부터 침입하여 병을 유발하는 것이고, 내인은 희로우비사공경(喜怒哀思恐驚) 등 심리작용의 불균형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불내외인은 식상(食傷) 외상(外傷) 피로(疲勞) 기생충 중독(中毒) 유전(遺傳) 등으로 발생하는 것을 말한다.

이렇듯 동양의학에서는 병을 단순히 병원균에 의한 신체 일부분의 이상(異常)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환경과 유기체, 정신과 신체의 부조화와 불균형을 유발하는 형태적 원인에 기인하는 것으로 본다. 또한, 인체는 각

구성 부분이 모두 상호관련적이고 상호의존적인 생명체라고 본다. 이러한 상관적 사고는 기혈의 적절한 순환이 생명이라고 보는 사고에서 생생하게 드러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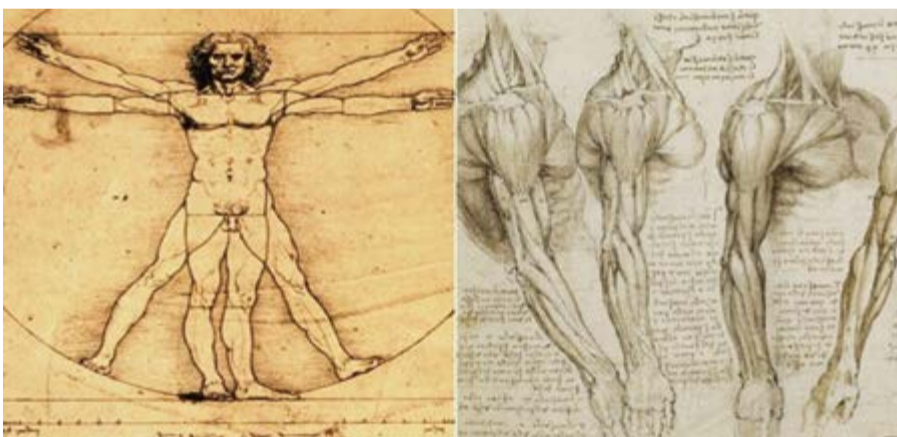
## 서양의학에서는 어떻게 보는가

서양의학에서도 19세기까지는 병이란 사람과 그 환경 사이에 조화가 깨지면 생겨나는 것이라고 믿어 왔다. 서양의학의 아버지라 불리는 히포크라테스에 따르면 네 가지의 다른 체액간에 균형이 깨졌을 때 병이 생긴다고 하였다. 요체는 평형상태로서의 건강, 환경의 중요성, 정신과 신체의 상호의존성, 자연본유의 치유력 등을 의학에서 중요시했던 것이다. 그의 전일적 의학의 사고는 고대 동양의학적 사유와 크게 일맥상통하는 점이 있다.

그러나 오늘날 현대의 과학적 의학의 등장은 19세기 생물학이 이룩한 위대한 진보와 더불어 시작하였다. 바로 19세기에 들어와 루이 파스퇴르와 로버트 코흐에 의해 질병의 '특정병원설(特定病原說)'이 대두되게 되었다. 특정병원설이란 하나의 특정 세균

# 질병의 근본적 원인은 무엇인가(2)

## 동양의학과 서양의학의 관점과 문제점



이 하나의 특정 질병의 원인이 된다는 신조로서, 이는 내외의 여러 환경 요인에 의한 내적 평형의 상실의 결과가 질병이라는 그 이전의 견해와는 사뭇 다르다. 아이러니하게도 그들은 연구실 안에서 이루어지는 실험을 통하여 단 하나의 특별한 병원균을 건강한 동물에 집어넣는 인공적 조치를 취하면 누구나 마음대로 해당 질병을 일으킬 수 있다는 것을 증명했다.

이러한 하나의 질병이 한 가지 요인에 의해 발생한다는 특정병원설은, 마치 기계의 고장은 하나의 잘못된 기능으로 추정될 수 있다는 근대 합리주의 철학의 거장인 데카르트적 사고(정신

과 물질을 구별하여 세계는 정신과 물질로 되어 있다) 생명관과 완전히 일치되는 것이다.

## 서양의학의 문제점 여실히 드러나

하나의 질병을 단일 원인으로 돌리는 '환원주의적 질병관'은 그 이후 의학 연구의 가장 큰 원동력이 되었으며, 현대 의학의 기본적 입장이 되었다. 서양의학의 근간은 병을 일으키는 병원체, 중요한 신진대사 과정의 장애, 그리고 성장에 필요한 각종 인자(因子)나 호르몬의 부족 및 생리적 스트레스야말로 개별적인 질병의 원인이라고 생각되게끔 되었다. 모든 질병은 각각 다른 하나의 원인을 가지고

것이다.

왜냐하면 특정한 '세균'이나 '생리적 장애'는 질병의 과정에서 나타나는 부수적인 현상이지 그것 자체가 질병의 근본적인 원인은 될 수 없기 때문이다. 그것은 어떠한 이유로 항상성의 파괴 과정에서 나타나는 현상들이지 그 자체가 최초의 병인(病因)은 아니라는 것이다. 세계적으로 유행하는 서양의학은 결코 나타나지 않는 증상을 억제하거나 제거하는 데에는 대단히 놀랄 만한 업적이지만, 그 증상이 왜 생기게 되었느냐 하는 '근본적 원인'을 밝히는 데에는 전혀 손을 쓰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요즘 병원에서 넘쳐나는 환자가 완전 치유가 되어서 나왔다는 이야기는 좀체 들어보지를 못했을 정도다. 이러한 기이한 현상은 마치 잡초를 제거하는 데 있어 풀기만 일시적으로 제거하고 그 뿌리를 그대로 놔둔 채로 제거했다고 하는 것과 별반 다르지 않다.

그럼, 과연 세균의 발생이나 생리적 장애가 일어날 수 있는 여건은 어떻게 해서 조성되며, 또 만병의 병인은 과연 무엇이란 말인가? 인간이면 누구나 꿈꾸는 것이 무병장수일진대, 우리의 간절한 염원을 가로막는 그 근본적 장애요소를 생리학적 과학적으로 확실히 밝히고, 또 그것을 어떻게 제거할 수 있는 지 다음을 기대해 보자.\*

김주호 기자